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진혁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체육훈련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NBA 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와싱턴인교회와 와싱턴사권의교회는 제가 일생동안 다닌 교회이고,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열 세 살 때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그 때 전승수 목사님이 담당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한데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둘이 있는데, 주일 학교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니?”라고 묻곤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어서 그 후에는 찬양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양회에 갔던 것인데, 저에게는 첫 번째 수양회였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것이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우리는 매나싸스 캠퍼스로 옮겼고, 그 때부터 찬양팀에서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없었고, 아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전도사님들을 보내 주셨고 점점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섬기는 일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잘 몰랐지만, 드럼과 전자 기타를 배워 돕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다시 센터빌로 이사했고, 그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찬양팀에서 섬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 경험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때 초월적인 경험들을 했는데, 그 중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팀은 20 명 정도로 구성된 꽤 큰 규모였습니다. 선교 일정의 중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허건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허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허목사님 맞은 편에 있었기 때문에 제 차례가 오기까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제 자신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우연의 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때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고 몸이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폭우는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싸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선교 여행 후에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주일에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즉 믿음을 매일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깨어져 있고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저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도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소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특별히 대학에 가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을 때 특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금 그분의 품으로 이끄셔서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겪어 온 일들로 인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경험했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로서 함께 기도했고 서로를 격려했으며 서로를 붙잡아 주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리라고 믿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기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어 계속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무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